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삼가해야 할 누룩들 II

(마 16:5-12)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참으로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신랄하고 혹독한 비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형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누룩 같은 것이지만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의 종교행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뤄놓으신 복음을 허물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은 시대, 시대마다 영적인 침체기를 흔들며 깨우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등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로마서를 읽고 그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으로 밝혔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할 때는 로마에 가지 전이였습니다(롬 1:13). 하지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이런 로마교회 성숙한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롬 15:22-24).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롬 1:11).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롬 1:15).

사도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는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며 시작되는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구원의 여정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유효한 것이지 결코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사람이 더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절대주권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신앙부흥에 필요한 감동과 기쁨, 내적치유와 리더십,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이고, 자기 명예이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리게 보일때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흐려지면, 사람들의 시선이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과 율법주의의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이키므로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The Yeast to Guard Against II

(Matt. 16:5-12)

Jesus really had many arguments with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Among arguments, he frequently gave an intense and severe criticism to the Pharisees. He warned them that they should never accept their wrong attitude of faith, like very little yeast that can't be seen with our eyes.

Why does Jesus say to be careful with their Pharisees' yeast? Because they demolish the achievement of which Jesus bled to death on the cross.

In this sense, the book of Romans is the very precious word of God. Especially, chapter one was a very strong tool of God that woke the depressed. A number of God's servants, St. Augustine, Martin Luther, John Calvin, Jonathan Edward, etc., read the book of Romans and found God's glory and organized a revival in that time.

The book of Romans is the letter that was written by the Apostle Paul to the church members in Rome. And there, the time when Paul wrote the book of Romans was before he visited Rome (Rom 1:13). But Paul heard that the member of Roman church believed Jesus Christ and their faith was very strong, and he expected that he would have a support from such matured members of Roman church, go to Spain, and preach the Gospel (Rom 15:22-24).

"I long to see you so that I may impart to you some spiritual gift to make you strong (Rom 1:11).

"That's why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also to you who are at Rome" (Rom 1:15).

The spiritual gift that the Apostle Paul said is no other than the Gospel. Jesus who was dying on the cross shouted 'everything is accomplished'. This includes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election, and glorification by starting a life that is saved because of belief in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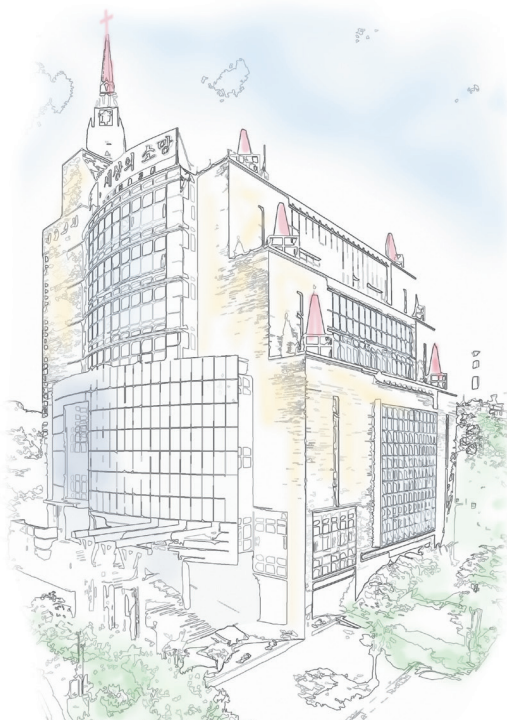
The cross is not only a symbol of our faith but also all of our life. Omniscient, infinite, holy, unbiased, true, and absolute attribution of God is included in the midst of the cross. It also includes affection and pleasure for our revival of faith, the inner healing, and the passion of command for a spiritual soul.

We sometimes fall into the faith of fallacy. We feel that we ourselves live a faithful life. At some point in our lives, we realize that what I hold is not the cross but the recognition, compliment, and respect of people, and my own honor, and tradition that I made. It begins a time when we start to blur our sight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If the cross appears a blur, it seems that man's sight looks bigger.

My beloved Christians,

How many things does the Apostle Paul have to be proud of? However, he says that he has nothing to be proud of except Jesus Christ. The faith centered by the cross is one remove from the faith of law.

By looking back to the Gospel of cross not to fall into the yeast of the Pharisees,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sincere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

## 사랑의 온도계 모금 · 헌옷 모으기 · 기증물품 접수로 힘찬 출발!

**바자자선음악회 : 9월 19일(금) 오후 8시 본당**  
**바자 : 9월 25일(목)~26일(금), 서울교회**

우리교회 2014 사랑의 바자(위원장 : 서문석장로) 사랑나눔 A+ 캠페인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사랑의 온도계 모금 활동이 당회원들로부터 시작되어 1, 2, 8층에서 이루어지며, 헌옷 및 재활용 생활용품들이 교구를 중심으로 접수되고 1% 나눔 및 10%절제운동이 한달간 시행된다.

또한 스포츠웨어, 숙녀복, 슬리퍼, 양산, 선글라스, 국수등 많은 기증 물품들이 접수되고 있으며 성도들의 사업장의 서비스 상품권(채근담 식사권, 완도 캠핑카 및 울진 펜션 이용권등)도 담지 되고 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계속 많은 물품들이 접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자본부에서는 적은 정성이라

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바자자선음악회'는 9월 19일(금) 오후 8시에 2층 본당에서 열릴 예정인데 찬양대 지휘자 등 많은 성도들이 재능기부를 하여 고품격의 음악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초대권은 교구간사와 다락방장들을 통해 배부되며 주위의 VIP들을 초대하여 전도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부금은 음악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모금함에 접수하면 된다. 2014 사랑의 바자는 "이웃과 함께하는 2014 사랑의 바자"는 불우이웃 및 탈북난민 돕기, 동남아 및 아프리카의 생명의 우물과기 살리당 후원 및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 사랑의 바자 섬김위원 >

- 지 도 : 황광목사
- 위원장 : 서문석장로
- 차 장 : 김광태집사
- 기획부 : 주동재집사 / 윤명구 최임수 최원석 김광민 한진수
- 판매관리부 : 예완식집사 / 임광우 김상태 장 덕이희국 문한식 각교구 간사
- 재정부 : 김형상집사 / 김영희 안분선 정경자 이경란 이안순
- 홍보부 : 서춘식집사 / 박희서 정치는 유은경
- 섭외부 : 송용훈집사 / 김장섭 박광식
- 특판부 : 진교인집사 / 김광룡 안준홍 신봉하 정진문
- 자선음악회부 : 오승민집사 / 김병호 류충기 김숙자
- 교회학교부 : 이준호집사 / 이민호 오윤걸 강성은
- 시설관리부 : 홍일성집사 / 이길재 고석태 오교식 신항범 안흥희
- 식당관리부 : 차도훈집사 / 장창수 최관목
- 차량관리부 : 최차순집사 / 박종구 이종창 진승근 유윤상 김규환 김혜수

### 7주간의 기도와 응답

## 2014 사명자대회

2014. 10. 5(주) ~ 11. 23(주) 50일간

새생명축제 : 2014년 10월 24일(금) / 10월 26일(주일) 양일간

특별새벽기도회 : 2014년 11월 17일(월)~11월 22일(토) / 강사 :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는 교회 설립 50일전부터 기도하므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해마다 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사명자대회를 진행하므로 교회 설립 기념일인 11월 넷째 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맞고 있다.

이에 국가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2014년 사명자대회를 10월 5일(주)~11월 23일(주)까지 50일간 시행하려고 한다.

2014 사명자 대회 주제성구는 '나 여호아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이사야 51:3)이며, 새생명축제는 10월 24일(금) / 10월 26일(주) 양일간 이뤄진다.

또한 특별새벽기도회는 11월 17일(월)~11월 22일(토) 동안 「복 있는 자의 삶」(마 5:12)이란 주제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강사로 선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 행동강령

- (1) 합심하여 열렬히 기도한다.
- (2) 영혼구원의 열정으로 전도한다.
- (3)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다.

### 공동기도제목

-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 (1)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소서.
  - (2) 우리 가정이 에덴동산 같게 하셔서, 가정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 (3) 우리의 일터에 복을 내리시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
  - (4) 다음 세대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최선의 경주를 하게 하소서.
  - (5) VIP초대 새생명 축제에 모든 가정, 다락방이 참여하여 열매 맺게 하소서.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43)

(문 143) 예레미야31:31-33에 주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 주님의 부활 후 오순절에 120명 문도들에게 내린 성령이 시작하신 사도시대의 교회를 일으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후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을 언급한 것입니다. 38절-40절에 있는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해 재건축될 것과 가림 언덕과 마문의 모퉁이 예언은 느헤미야 때에(446-445BC)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3:1-, 24, 28)

그러나 새 언약의 시작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야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14:17)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기적적으로 오심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고전6:19, 벧전2:5, 렘31:33)에 언급한 하나님의 법의 근원이 되신 성령님이 중생한 신자의 심령에 기록하므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기 까지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자의 수에 들어온 후 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은혜 언약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관에 있지 아니하다'(롬 2:29)라고 했습니다. 은혜 언약아래 있는 이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갈3:7, 29) 히8:6-12에서 느헤미야의 예언을 1세기 크리스찬에게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대-이방인교회의 예언으로 본 것을 완전한 해석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중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약속은 에스겔36:24-28에서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롬11:25-26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렘31:31-33은 두 단계의 성취로 예언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 교회에서 성취되었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날 유대백성이 국가적으로 각성하고 우리 주님을 메시야로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2014바자를 준비하며

# 바자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주중재 집사  
(2014바자 기획부장)

“올해는 서울교회 바자가 언제유~” 한티공원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다 전도지를 받던 중년여성이 묻습니다.

서울교회 바자는 대내외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쓸만한 물건이 많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 손꼽아 기다리며 매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골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다른 교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2014 사랑의 바자’는 현당과 아가페타운 건축을

마무리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자목표는 주위의 불우이웃 및 탈북난민 돕기 외에 동남아 및 아프리카 생명의 우물파기, 살리당 후원 및 중앙아시아 선교지 돕기까지, 열방을 향해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바자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주변상권과의 마찰을 피하고 위탁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 순회 바자팀의 입점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바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느 해보다 많은 성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상품의 기증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병원등의 서비스상품을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성도간의 교제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능기부를 통하여 바자를 더욱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음악재능을 기부받아 “바자자선음악회”를 9월 19일(금)에 개최코자 합니다.

‘2014 사랑의 바자’를 통해 열방에 마음껏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과 함께 가을밤의 기독교 문화에 흠뻑 빠져 보기도 하며 근검절약과 나눔을 몸에 익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재미있고 은혜가 넘치는 바자, 사랑이 충만하고 교제가 풍성한 바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생후 첫 교회출석 축하기도를 받고서

## 아가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박영준 목사 · 이현순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그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비틀거릴 수 없을 것이다.” 조지 물러의 고백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존귀할진대 한 가정에 자녀는 얼마나 귀할까요?

저희 가정에 한 생명을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로 결혼한 지 8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4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의학의 힘을 빌려보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낙심이 찾아왔지만, 7년째 저희 가정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서 자연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에서 출산하고, 아기가 생후 첫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는 말씀에 영감을 얻어 ‘믿을 시(特)’를 넣어 시현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유아세례도 받았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낳은 딸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귀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땅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보고 - SHWEPYITHAR CHURCH

## Please Pray For Our Church

Rev. Ko Tin

Church attendance is getting down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most of our church members have been facing as well as prices soar in Myanmar. Some have to work on Sunday for survival while others would go to other churches that give rice and financial as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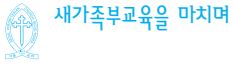
I managed to get familiar with those seekers and share the gospel with them, and often take train so that I could witness to those around me. Other times I go from house to house to share the gospel. At special occasions such as birthday and thanks giving time I take an opportunity to share good news of salvation.

### Prayer Requests

- 1) Please pray for our church that each of the membership may grip the truth and develop Bible study so as to grow spiritually.
- 2) For food, shelter and cloth as well as physical wellbeing of church members.
- 3) For church growth as well as spiritual awakening in the church.
- 4) That I may be anointed with boldness in witnessing for Christ, and that I may be able to teach and preach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 서울교회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명주은 성도  
(1교구)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까지 인천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온,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추구하는 서울교회 제1교구의 맹주은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스텝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서 새가족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귀한 자리, 중요한 자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주간의 새가족 학교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근본을 깨닫게 해주고, 신앙적으로 계를 세울 수 있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유문건목사님과 새가족 스텝으로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질은 풍성하지만 갈수록 삭막해지는 사회속에서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새신자가 입문하면 3가지과정 전도, 정착, 양육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양육의 고리는 정착입니

다. 대부분의 교회는 새신자의 정착율이 낮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든 새신자가 처음 접하는 새가족 학교에서 새신자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착을 잘하면 양육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가족 교육은 새신자를 서울교회의 한가족이 되게 정착시키는, 기본적인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시간, 마지막까지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성품,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기도하고 다짐해봅니다.

##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9월 5일(금)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기독교운동본부 공동대표모임을 소집한다. 9월 6일(토) 사랑의 쌀운동, 몽골올란타타르대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전시 : 15교구 전광영집사 뉴욕, 맨아탄, 첼시 헤이스티드&크라우슬러갤러리 9월 4일~11월 1일까지

■ 영전 : 4교구 백경화 집사 (가브리엘천양대 지휘) 국립합창단 상임 부지휘자

■ 취임 : 3교구 송용훈 집사 9월1일부로 강릉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

■ 출간 : 3교구 한민진 집사 박정순1 권사의 자부 강인영 성도 『취업의 정서』

■ 득녀 : 12교구 김동욱 성도 이수경 성도 (김성준 집사, 김선영 권사 장남가정)

■ 주일식당봉사 : 빌립선교회 리브가전대회(8.31) 안드레선교회 한나전대회(9.7)

■ 금주의 식사 제공 : 최형열 집사 김찬진 권사 가정 (정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김가현 성도  
(그레이스핸드벨코어)

예배로 시작해 찬양으로 마치고 한 제주에서의 5일이 꿈결 같이 느껴집니다. 핸드벨이 중세 교회 타워벨에 기원을 두고 예배를 위해 지어진 악기여서일까요, 핸드벨 세계 대회는 매우 기독교적인 행사였습니다.

매일의 첫 일정은 예배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대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차일같이 피시며 달려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종일 이어지는 연습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너무나 즐거웠고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해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 날 아침 주셨던 이사야서 말씀이 자기 전에도 아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로 시작된 대회의 주된 일정은 마지막 날 있을 파이널 콘서트를 위해 600여명의 참가자 모두가 함께 하는 연습(mass-ringing)이었습니다. 연습은 세계 각국에서 오신 여덟 분의 지휘자님의 지도 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한 곡당 30분씩만 해도 반나절이 금세 지나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친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찬양하는 즐거움이 서로 비쳐 그 시간은 곧 기쁨이었습니다. 연습에 임하는 참가자들 모두 세계 각처에서 다른 상황 다른 삶을 살아 가고 있지만 나 자신은 가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한 마음이 되던 그 시간이야말로 이번 대회의 백미가 아니었을까 감히 생각해보입니다. 적은 언어로 많은 말을 한다는 게 이런 걸까 싶었어요.

각 팀이 한 곡씩 선보이는 솔로 콘서트 때 저희는 윤주일 집사님의 팀파니, 김윤지 성도님의 오르간, 그리고 고요한 단원의 해금과 협연하여 보다 풍부한 음색으로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야를 연주했습니다. 웅장함과 음악성으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는데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즐거움, 휴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울에서의 삶보다 어쩌면 더 바빴던 일정이었지만 그러나 받은 은혜를 세어 보며 더없이 행복했던 시간들. 역설적인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역설이듯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저의 삶에 친히 찾아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주시며 찬양함에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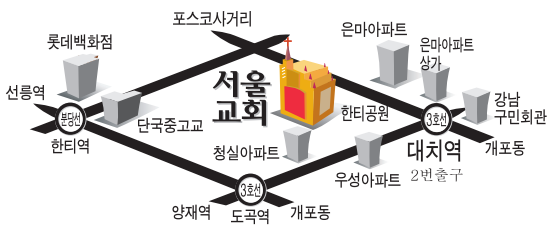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랑의 바자와 연관된 귀한 사역들이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로 잘 진행되도록
2. 장로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끝난 서울교회 여름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3. 새교우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며 새생명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